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5 pp. 134-141,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5.13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학군(ROTC)장교와 병 인력운영유지비 분석에 관한 연구

강경환
대한민국 육군 분석평가단

A Study on Analysis of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officer and Enlisted Man Manpower Operating Costs

Kyung Hwan Kang
Center for Army Analysis and Simulation

요 약 학군단 지원율 감소 원인은 다양하나, 최근 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 봉급 인상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이점이 없다”라는 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병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초급간부 획득의 어려움, 이로 인한 국방 인력 구조의 변화, 연계된 병역제도의 변화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아울러 방위력개선비와 기타 전력운영비의 감소로 이어져 국방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병 봉급인상계획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의 학군단 출신 장교와 병의 인력운영유지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앞서 밝힌 장기적인 국방인력 운영전략,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인력운영유지비는 급여, 피복비, 급식비를 포함하며, 분석결과 학군단 출신 장교와 병의 인력운영유지비는 2011년에 8.35배 차이였으나, 2024년 현재는 1.91배, 2025년에는 1.79배로 그 격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 인력운영유지비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급여의 인상으로 2011년 입대한 병과 2025년에 입대 예정인 병 기준시 급여는 17.8배 증가, 급식비는 2.27배 증가, 피복비는 1.45배 증가하였다.

Abstract The decline in ROTC application has several explanations, but a recent KIDA study reported that the most common reason was that "there is no financial benefit to officer service due to increased enlisted man pay." The more important issue will be the difficulty of acquiring entry-level cadres because of the rise in military personnel costs, the resulting changes in the defense human resource structure, and the changes in the linked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human resource operating costs of ROTC officers and enlisted men from 2011 to 2025, when the enlisted men's salary increase plan was complete. It is hoped that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long-term defense human resource operation strategy and rational allocation of defense resources. Human resource operating costs include salaries, clothing, and feeding costs, an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ap between ROTC officer and enlisted human resources operating costs is expected to decrease from 8.35 times in 2011 to 1.91 times in 2024 and 1.79 times in 2025. The largest increase in enlisted human resources operating costs has been due to the increase in salaries, with a 17.8-fold increase, as well as 2.27-fold increases in feeding costs and 1.45-fold increases in clothing costs in 2011 and 2025.

Keywords : ROTC, Enlisted Man, Salary, Feeding Costs, Clothing Costs, Manpower Operating Costs

*Corresponding Author : Kyung Hwan Kang(ROKA Headquarters)
email: optimal11@icloud.com
Received February 23, 2024 Revised March 13, 2024
Accepted May 3, 2024 Published May 31, 2024

1. 서론

학생군사교육단(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ROTC)은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제도로 육군 초급장교의 약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ROTC 선발 경쟁률은 2014년 6.1 대 1, 2021년 2.6 대 1, 2022년 2.4 대 1로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6 대 1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으며 후반기 추가모집을 하였다[1].

ROTC 지원율의 하락요인에 대해 김영곤[2]은 ROTC 2,766명과 현역 학군단 출신 장교(이하 “학군장교”) 3,2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단계를 적용하였으며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ROTC 조사결과 총 34개의 하락요인 중에서 ‘병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라는 응답의 평균값이 4.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앞으로도 장교들보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4.019로 나타났다. 현역 학군장교 조사결과도 총 34개의 하락요인 중에서 ‘병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가 가장 높은 4.765의 값을 나타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국방위원회)[3]에 따르면 병 봉급은 Table 1과 같이 병장 기준으로 2022년 676,100원에서 2025년까지 1,50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계급 간 봉급 간격은 2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인상률은 2022년 11.1%, 2023년 47.9%, 2024년 25.0%, 2025년 20.0%이며, 이에 따라 병 인건비 예산도 2022년 230.5억 원에서 2025년에는 410.66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Table 1. Plans to raise soldiers' salaries by year (2022~2025)

Year		2022	2023	2024	2025
Enlisted man salary (KRW)	Sergeant	676,100	1,000,000	1,250,000	1,500,000
	Corporal	610,200	800,000	1,000,000	1,200,000
	Private 1st class	552,100	680,000	800,000	960,000
	Private	510,100	600,000	640,000	768,000
Upside rate		11.1%	47.9%	25.0%	20.0%
Budget(billion won)		230.50	282.59	342.78	410.66

월별로 지급되는 병 봉급과 함께,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에 따라 병장 기준으로 2025년에는 월 55만 원(2022년 14.1만 원→2023년 30만 원→2024년 40만 원)이 책정되어 실제 월 수령액은 2025년에는 매월 205만 원(봉급 150만 원, 내일준비적금 5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4].

ROTC 지원율의 하락요인은 병 봉급 인상, 간부에 부여된 과중한 책임, 장기복무 지원 경쟁에 대한 부담, 예비역 장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1].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군장교와 병의 인력운영유지비 분석은 병 인건비 상승과 ROTC 지원율의 하락 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가 병 인건비의 상승과 연계된 초급간부 획득의 어려움, 이로 인한 국방인력 구조의 변화, 방위력 개선비와 기타 전력운영비 등 타 국방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학군장교와 병의 인력운영유지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력운영유지비는 급여를 포함한 급식 및 피복비를 포함하는 비용으로 국방예산 과목구조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국방예산 과목구조의 국방 분야(040)는 병력운영(041), 전력 유지(042), 방위력개선(043)으로 구분되며, 이중 병력운영(041) 분야에는 급여정책(1100)과 급식 및 피복(1200), 회계기금 간 거래(8100)의 3가지 예산과목이 있어, 병력운영과 직접 관련된 급여, 급식비 및 피복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몇 년의 병 봉급에 관련한 자료들은 일부 연구와 국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비교분석 연구는 그간 수행되지 않았고, 급여를 포함한 인력운영유지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데이터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우수한 학군장교 획득 정책의 수립, 국방비 중 경직성 예산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병의 인력운영유지비를 학군장교와 비교한 이유는 초급장교 중 학군장교는 매년 임관하는 전체소위의 약 70%이며, 육군 초급장교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음을 고려한 것이다[1]. 학군장교 인력운영유지비는 초급장교 전체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제3장에서는 학군장교와 병의 인력운영유지비 분석결과를, 제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2.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학군장교의 획득, 충원 및 복무실태와 관련된 연구이며, 두 번째는 현 징병제도와 관련된 비용분석, 국방비 재원배분 등과 관련된 연구이다.

학군장교의 획득, 충원 및 복무실태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최영진[5]은 2022년 초급간부의 계급별 1호봉 월 급여현황을 제시하였다. 기본수당(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을 포함하여 하사는 2,005,400원, 소위는 2,080,500원, 중위는 2,245,900원으로 최근 추진하고 있는 병 봉급 월 200만 원이 현실화될 경우, 급여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황현호 외[1]는 학군장교 선발 지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홍보전략, 병과 대비한 상대적 낮은 복무여건, 간부에게 집중되는 책임, 군인에 대한 위상 저하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위의 임금은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 ~ 2% 상승하고 있지만, 병은 매년 30%씩 증가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소위의 급여가 병장보다 월 20만 원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김명렬 외[6]는 과거에는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이 병에 비해 짧고 봉급이나 사회적 평판, 전역 후 취업 등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우수자원이 학군장교로 지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서 역량기반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학군장교 획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백재옥 외[7]는 과거 정부의 병 봉급 인상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6년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서 병 봉급(상병 기준)을 2020년에 20만 원으로, 참여정부는 병 봉급(상병 기준)을 2004년 35,800원을 2007년 80,000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병 봉급(상병 기준)을 2012년 대비 2017년에 2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병 봉급 인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강원석 외[8]는 징병제도에 따른 운영유지비를 분석하였으며 운영유지비는 급여, 급식 및 피복비로 구성되며 연간 운영유지비는 2022년 기준으로 병장은 13,177,200원이 소요되며, 이중 급여는 8,113,200원, 급식비는 3,776,400원, 피복비는 1,287,600원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병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2034년부터는 전투력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보강비용을 추가로 계산할 경우, 현 징병제 유지를 위한 연간유지비용이 약 3.2 ~ 6.4조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유지[9]는 초급간부 획득률이 병 봉급 200만 원 시행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병 복무 16개월 분할 인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6개월 복무 후, 인턴 우수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현역부사관 및 장교 선발로 초급간부 양성의 교두보로 삼자는 것이다. 김민호[10]는 국방비의 상승이 무기와 장비 등 기술혁신에 필요한 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방예산은 인건비와 장비 유지를 비롯한 전력운영비 위주로만 할당되어 장기적인 군사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2017년 파이낸셜 뉴스의 “병사 봉급 인상에 밀린 대북 미사일 방어사업”을 인용하며, 국회에서도 킬체인, KAMD, KMPR 등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일부 사업이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삭감되는 등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였다. 이동환 외[11]는 우리 군의 병역제도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만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만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모병 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군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병역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만 정부가 인력획득을 위해 봉급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과도한 추가예산이 필요하기에 국방비 부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학군장교의 지원율 하락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연구, 최신 무기의 도입과 유지 예산의 감소, 국방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학군장교와 병의 급여를 포함한 인력운영유지비의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수행하였거나, 향후 수행예정인 우수한 학군장교의 획득을 위한 정책 수립, 국방비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의 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무와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이 있다.

3. 학군장교와 병 인력운영유지비 분석결과

3.1 분석 기준

인력운영유지비는 국방예산 과목구조의 급여(1100)와 급식 및 피복(1200)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력운영유지비 구성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직접비는 간부와 병에게 직접적인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 급식비, 피복비로 구성되며 간접비는 직접 간부에게 현물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인력운영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Table 2. Detailed include of manpower operating costs

Classification		Composition
Direct cost	Compensation	・Basic pay(Salary, Allowance for good attendance) ・General Allowance(Additional allowance for good attendance, Family allowance, Over time Allowance) ・Welfare Benefit(Allowance for position, Holiday expense, Annual leave allowance, Performance bonus)
	Meal Expense	・Basic meal expense
	Clothing Expense	・Initial clothing expense, Supplement clothing expense
Indirect cost		・Pension Contribution,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Long-term care insurance contribution, Customized welfare expense

학군장교의 인력운영유지비 산정기준은 육군본부의 2023 예산회계 실무기준[12]에 의한 '군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이지 않고 초급장교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특수병과수당(법무관 수당, 방송신문 수당), 특수 근무지 수당(재외근무 수당, 전투부대 근무장려 수당), 관리업무 수당(소령 이상), 특정업무비(중령 이상), 차량 유지비(장성), 개인 용품비(병, 후보생), 정액 급식비(군무원) 등은 제외하였다. Table 2와 같이 급여는 기본급여(봉급, 정근수당), 일반수당(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시간 외 수당),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로 구성된다. 급식비는 기본급식비만 포함하며, 피복비는 초도 피복비, 보충 피복비로 구성된다. 간접비는 국고 부담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맞춤형 복지기금을 포함한다.

병의 인력운영유지비 산정기준은 학군장교와 같되, 병에게만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하였다. 급여는 기본급여인 봉급, 급식은 기본급식비와 증/특식비(영내자)가 포함되며, 피복은 초도 피복비, 보충 피복비, 개인용품비가 해당된다. 이외에 간부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간접비는 제외하였다.

Table 3은 학군장교와 병의 인력운영비 산출기준을 종합한 표이다. 분석대상은 학군장교는 매년 3월 임관자, 병은 매년 3월 입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복무기간은 학군장교는 2011년 임관자 이후부터 28개월을 복무한다. 병의 경우 2011년~2017년까지 입대자는 21개월, 2018년 입대자는 20개월, 2019년 입대자는 19개월 2020년 이후 입대자는 18개월을 복무하였다. 계급별 복무기간은 학군장교는 소위로서 12개월, 중위로서 16개월을 복무하였다. 병의 경우 2019년 이후부터는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 복무를 하였다. 인력운영유지비 산출을 위해 적용된 공통기준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력운영유지비는 육군본부에서 분석한 표준비용편람[13]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이후의 인력운영유지비는 육군본부의 2023년 표준비용편람의 인력운영유지비 산출기준을 적용하였다. 급여의 경우 병은 병 봉급 인상계획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르면 병장을 기준으로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하여 2023년은 매월 130만 원, 2024년은 16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205만 원을 받게 된다. 학군장교는 2023년, 2024년은 봉급표를 반영하였으며, 2025년은 회귀분석을 활용한 추정치를 반영하였다. 월간 인력운영유지비는 전체복무기간의 비용 합계를 복무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Table 3. Calculation standard of ROTC officer and enlisted man manpower operating costs

Classification		ROTC officer	Enlisted man
Who to analyze?		・Based on commissioned officers in march every year	・Based on enlisted man in march every year
Period of service		・After 2011 : 28 Month ・Second lieutenant / lieutenant : 12 / 16 Month	・2011 ~ 2017 : 21 Month ・2018 / 2019 : 20 / 19 Month ・After 2020 : 18 Month
		・Period of service by enlisted man rank(Private / Private first class / Corporal / Lance corporal) ・Before 2012 : 5 / 6 / 7 / 3 Month, 2013 ~ 2018 : 3 / 7 / 7 / 4 Month, After 2019 : 2 / 6 / 6 / 4 Month	
Operating costs	Common	・2011~2022 : Standard costs handbook by ROKA ・After 2023 : Calculation Standard for 2023 Operating costs(Including Meal expense, Clothing expense)	
	Salary	・2023 ~ 2024 : 2023 salary standard was reflected ・2025 : Estimates salary using regression analysis	・Enlisted man salary increase plan was reflected ・Sergeant(every month) : 1,300,000 KRW(2023), 1,650,000 KRW(2024), 2,050,000 KRW(After 2025)
Monthly Operating costs (KRW / 1 Month)		・Total operating costs for sum of period of service ÷ period service(month)	

3.2 분석결과

3.2.1 복무기간 월 평균 인력운영유지비

Table 4. Average monthly operating costs of ROTC officer and Enlisted man

Year	Total cost (1,000 won)		Average monthly cost (1,000 won)		Multiples
Year	ROTC officer	Enlisted man	ROTC officer	Enlisted man	
2011	68402.5	6141.0	2442.9	292.4	8.35
2012	71636.7	6576.0	2558.5	313.1	8.17
2013	74365.8	7125.6	2655.9	339.3	7.83
2014	77176.6	7787.3	2756.3	370.8	7.43
2015	80246.9	8298.6	2866.0	395.2	7.25
2016	83289.0	8827.9	2974.6	420.4	7.08
2017	86449.6	11169.7	3087.5	531.9	5.80
2018	89698.4	12300.5	3203.5	615.0	5.21
2019	91938.5	13181.9	3283.5	693.8	4.73
2020	94527.2	14373.1	3376.0	798.5	4.23
2021	97367.2	16139.3	3477.4	896.6	3.88
2022	99503.7	22355.4	3553.7	1242.0	2.86
2023	101919.9	29890.5	3640.0	1660.6	2.19
2024	104779.5	35250.5	3742.1	1958.4	1.91
2025	107158.7	38390.5	3827.1	2132.8	1.79

Table 4는 복무기간 인력운영유지비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분석한 것이다. 2011년 3월에 임관한 학군장교와 입대한 병의 복무기간 총 인력운영유지는 학군장교는 6,840.2만 원, 병은 614.1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2025년은 학군장교는 10,715.8만 원, 병은 3,839.0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에 따라 복무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 평균 인력운영유지비의 경우, 2011년에는 학군장교는 244.3만 원, 병은 29.2만 원의 인력운영유지비가 소요되어 8.35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여 2024년의 경우, 학군장교는 374.2만 원, 병은 195.8만 원으로 1.91배의 차이로 감소하였다. 병 봉급인상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에는 1.79배로 그 차이는 줄어든다.

3.2.2 병 인력운영유지비의 세부현황 및 증가요인

Fig. 1은 시기별 월평균 병 인력운영유지비의 세부현황이다. 병의 2024년 이후 급식/피복비는 2023년 급식/피복비를 적용하였다. 월 평균 급여는 2011년에 입대한 병사의 경우 9.5만 원, 2023년에는 122.7만 원, 2024년에는 152.4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69.9만 원으로 2011년 대비 17.8배 증가하였다. 월 평균 급식비는 17.8만 원(2011년)에서 30.6만 원(2021년), 37.1만 원(2022년), 40.5만 원(2023년)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대비하여 2023년 기준으로 2.27배 증가하였으며 급식문제가 대두되었던 2021년, 2022년에 113%, 12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급식비 증가율 104%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월 평균 피복비는 2.0만 원(2011년)에서 2.7만 원(2021년), 2.9만 원(2022년), 2.9만 원(2023년)으로 1.45배 증가하였다.

급여가 월 평균 인력운영유지비를 차지하는 비율은 33%(2011년), 43%(2016년), 63%(2021년), 80%(2025년)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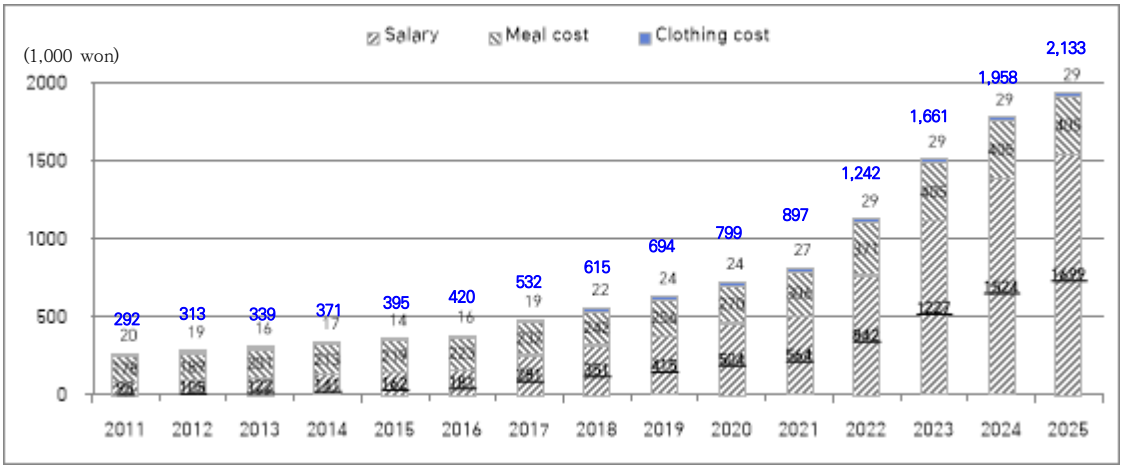

Fig. 1. Average monthly manpower operating costs for enlisted man by year of enlistment

3.2.3 복무기간 학군장교와 병의 급여비교

Table 5는 복무기간 학군장교와 병의 급여 총액을 비교한 표이다.

Table 5. Total salary for the period of service (1,000 won)

Year	ROTC officer(a)	Enlisted man(b)	Difference (a) - (b)	Multiples (a) / (b)
2011	58,705	1,993	56,713	29.46
2012	60,839	2,202	58,637	27.63
2013	62,523	2,572	59,951	24.31
2014	64,608	2,959	61,649	21.84
2015	67,418	3,403	64,016	19.81
2016	70,197	3,802	66,395	18.46
2017	73,112	5,910	67,202	12.37
2018	76,012	7,018	68,994	10.83
2019	77,946	7,877	70,069	9.90
2020	80,172	9,074	71,098	8.84
2021	82,535	10,143	72,392	8.14
2022	84,429	15,153	69,276	5.57
2023	86,789	22,080	64,709	3.93
2024	89,648	27,440	62,208	3.27
2025	92,027	30,580	61,447	3.01

복무기간 동안 받는 급여의 총액은 2011년 기준으로 학군장교는 5,870.5만 원, 병이 199.3만 원으로 29.46배 많았으나, 2024년 현재는 학군장교는 8,964.8만 원, 병이 2,744.0만 원으로 3.27배 차이가 난다.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급여 총액은 연평균 3.2% 인상됐지만, 병은 2017년 입대자가 55%, 2022년 입대자는 49%, 2023년 입대자는 46%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연평균 약 22.3%가 인상되었다.

급여의 총액과 함께 관찰할 부분은 복무기간으로서 병의 복무기간은 2017년 21개월, 2018년 20개월, 2019년 19개월, 2020년 이후는 18개월로 순차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급여의 인상으로 복무기간의 급여 총액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현 추세로 인상 시 2025년에는 학군장교의 급여 총액은 9,202.7만 원, 병의 급여 총액은 3,058.0만 원으로 3.01배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2.4 월평균 학군장교와 병의 급여비교

학군장교와 병은 복무기간이 상이하므로 월평균 급여를 통한 비교가 좀 더 합리적인 비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6과 Fig. 2는 월 평균 학군장교와 병의 급여 총액을 비교한 표이다. 월 평균 급여는 2011년에는 학군장교가 209.7만 원, 병이 9.5만 원으로, 학군장교와 병이 22.10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학군장교가 320.2만 원, 병이 152.4만 원으로 2.10배로 그 차이가 줄어들며, 2025년에는 학군장교가 328.7만 원, 병이 169.9만 원으로 1.93배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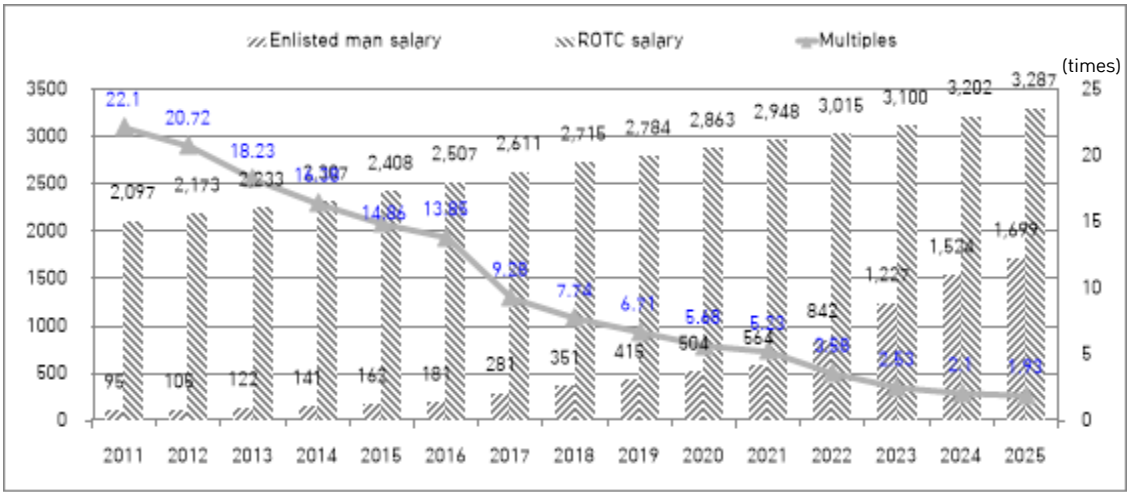

Fig. 2. Average monthly salary of ROTC officer and enlisted man

Table 6. Average monthly salary(1,000 KRW)

Year	ROTC officer(a)	Enlisted man(b)	Difference (a) - (b)	Multiples (a) / (b)
2011	2,097	95	2,002	22.10
2012	2,173	105	2,068	20.72
2013	2,233	122	2,110	18.23
2014	2,307	141	2,167	16.38
2015	2,408	162	2,246	14.86
2016	2,507	181	2,326	13.85
2017	2,611	281	2,330	9.28
2018	2,715	351	2,364	7.74
2019	2,784	415	2,369	6.71
2020	2,863	504	2,359	5.68
2021	2,948	564	2,384	5.23
2022	3,015	842	2,173	3.58
2023	3,100	1,227	1,873	2.53
2024	3,202	1,524	1,677	2.10
2025	3,287	1,699	1,588	1.93

4. 시사점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2025년의 병장에 대한 지급금액 205만 원은 2022년에 지급한 81.7만 원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0%(2023년 47.9%, 2024년 25%, 2025년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병 인건비의 예산 규모도 2022년 2조 2,523억 원에서 2024년 3조 2,65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3].

장기적인 영향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한 번 지급된 급여액을 다시 삭감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급여 인상에 따라 커진 병 인건비 지출 규모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파생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장기적인 국방인력 운영전략에 관한 사항이다. 병 급여가 초급 부사관과 초급장교의 급여와 비슷해짐으로 인해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으로 인력획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징병제 또는 모병제와 같은 병역제도에 관한 논쟁도 심화될 것이다. 증가하는 병 인건비가 향후의 국방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방 분야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병 급여 인상으로 초급간부, 군무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주목받을 것이며 연쇄적으로 병력운영비의 지출 규모가 상승할 것이다. 한정된 국방예산 내에서 병력운영비의 상승은 첨단전력 획득 등 방위력개선비와 급여를 제외한 전력운영비의 점유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5. 결론

ROTC의 지원율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며, 국회에서도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 문제, 초급간부의 인력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과거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학군장교와 병의 인력운영유지비와 급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인력운영유지비와 급여는 분석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육군본부 2023년 예산회계 실무기준과 2011년부터 분석하고 있는 육군본부 표준비용편람을 활용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운영유지비는 학군장교와 병의 차이가 2011년에는 8.35배 차이를 보였으나, 병 봉급인상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에는 1.79배로 그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 인력운영유지비의 급격한 증가는 병 급여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병의 급여가 월 평균 인력운영유지비를 차지하는 비율은 33%(2011년), 43%(2016년), 63%(2021년), 80%(2025년)으로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병 급여는 17.8배 인상된 반면, 급식비는 2.27배, 피복비는 1.45배 증가하였으며 학군장교의 급여는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급여의 경우, 학군장교의 병의 차이가 2011년에는 22.1배 차이였으나, 2025년에는 1.93배로 그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약 및 한계점은 본 연구의 시사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국방인력 운영전략과 국방예산 배분, 모병제 도입 가능성 등 국방비와 인력구조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되고 정량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군장교의 지원율 저하와 인력운영유지비의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2]의 설문을 통한 리커트척도(Likert Scale) 연구결과를 인용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제약사항이 있다. 이와 같은 제약 및 한계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넓어 이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주제로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ferences

[1] H-H. Hwang, J-S. Yoo, "Reasons for the Decline in the ROTC Application Rate and the Plan to Acquire Offic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3, No.8, pp.517-528, 2023.
DOI: http://doi.org/10.5392/JKCA.2023.23.08.517

[2] Y-G. Kim,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cline in ROTC Application Rates and How to Improve them", *KIDA Defense Issues & Analyses,* No.1975(24-2), pp.1-10, 2024.

[3] _____, "2024 Budget Proposal Analysis by Committe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p.161-165, 2023.

[4]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2.5% increase in civil servants' salary in 2024[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1000001052390?policyType=G00301&srchTxt=%EB%B3%91%EC%9E%A5%20%EC%9B%94%EA%B8%89 (accessed Mar. 12. 2024)

[5] Y-J. Choi, "A Study on the Service of Entry-Level Cadres of the Korean Army and Improvement Plan : Focusing on the Recruitment System", *Strategic Studies,* Vol.88, pp.85-111, 2022.
DOI: http://doi.org/10.46226/jss.2022.11.29.3.85

[6] M-L. Kim, C-K. Kim,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ROK Army's ROTC in the Aspect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Focusing on the Human Resource Attraction and Selection", *Review of Korean Military Studies,* Vol.11, No.1, pp.43-68, 2022.
DOI: http://doi.org/10.34166/rokms.2022.11.1.43

[7] J-O. Paek, S-B. Shim, H-W, Chung, "The Analysis of the Cost Drivers for the Mid-term Defense Budget and the Suggestion for a Reasonable(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34, No.3, pp.71-103, 2018.
DOI: http://doi.org/10.22883/jdps.2018.34.3.003

[8] W-S. Kang, M-S. Lee, S-T. Kim, H-H, Kim,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ransitional Military Service System due to the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Focusing on the Maintaining Cost Analysis of Conscription", *Innovation Studies,* Vol.18, No.1, pp.207-224, 2023.
DOI: https://doi.org/10.46251/INNOS.2023.2.18.207

[9] Y-J. Jeong, "A Brief Study on the Solution to the Exchangeable Coronavirus Fear Politics",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6, No.2, pp.95-99, 2022.
DOI: http://doi.org/10.37181/JSCS.2022.6.2.095

[10] M-H. Kim,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Decrease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33, No.3, pp.101-139, 2017.
DOI: https://doi.org/10.22883/jdps.2017.33.3.004

[11] D-H. Lee, W-S, Kang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ransition from Conscription to Volunteer System in the Military - Focusing on Cost Analysis", Innovation Studies, Vol.12, No.1, pp.75-101, 2017.
DOI: https://doi.org/10.46251/INNOS.2017.02.12.1.75

[12] _____, "2023 Budget Accounting Practice Standards", *Republic of Korea Army*, pp.368-369, 2023.

[13] _____, "2011~2022 Standard Cost Manual", *Republic of Korea Army*, 2011~2022.

강 경 환(Kyung Hwan Ka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산업공학 석사)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산업공학 박사)
- 2007년 3월 ~ 2018년 12월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담당/팀장
- 2019년 12월 ~ 현재 : 육군본부 전력단, 분석평가단 과장

〈관심분야〉
무기체계사업관리, 운영분석, 분석평가, 최적화